

여수섬박람회 D-500… “섬 발전 청사진 제시할 것”

조직위 시설 공사 등 준비 박차 주행사장 총 8개 전시관 만들어 대표상징물 ‘섬 랜드마크’ 조성 접근성·예산 부족 문제 속제로

(재)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조직위원회가 박람회 개최 D-500일을 맞아 행사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3일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내년 9월5일부터 11월4일까지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을 진모지구, 금오도, 개도 등지에서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를 주제로 열리는 2026여수세계섬박람회가 이날 기준 500일 앞으로 다가왔다.

조직위는 현재 본격적인 시설 조성에 앞서 박람회장 배치 등 내용을 담은 설계 용역을 진행 중이며 오는 6월 용역이 완료되면, 7월부터 공사에 착수하는 등 본격적인 시설 조성에 돌입한다.

5만5000명에 이르는 주행사장 돌산 진모지구는 지난달 부지 평탄화 작업이 완료됐으며 많은 비가 내려도 문제가 없

록 도로보다 평균 2m 높게 조성됐다.

박람회장 전시시설 주변으로는 도시숲과 실의 정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현재 설계 용역을 실시 중이며 부행사장은 여수세계박람회장과 개도, 금오도 등으로 개도에 조성 중인 섬어촌문화센터는 현재 성토작업을 마치고, 내년 3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돌산 진모지구 주행사장에는 총 8개의 전시관이 들어선다.

먼저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라는 섬박람회의 주제를 구현할 주제관은 행사장의 랜드마크로 조성된다. 미디어아트와 LED 그래픽 사이니지 연출로 섬과 바다의 무한한 가치를 보여줄 계획이다.

또 섬 해양생태관과 섬 미래관에서는 섬의 위기와 미래에너지 기술을 제시하고, 섬 공동산과 섬 문화관에서는 세계 각국 섬의 모습을 연출할 예정이다.

조직위는 섬박람회 주제의 가치와 비전을 보여줄 핵심 사업도 최근 확정했다.

먼저 섬박람회 대표상징물로 ‘섬 랜드

마크’를 조성, 주제관이 될 랜드마크에서는 이머시브 미디어터널을 통해 섬의 지속가능한 가치와 미래 생존 공간으로서의 메시지를 전달하게 된다.

섬 체험으로는 ‘여수 섬 투어’와 캠핑, 트레킹 프로그램을 마련했으며 남해안권 리아스식 해안을 감상하고 둘러볼 수 있는 ‘섬 연안크루즈 운항’을 추진하고 있다.

조직위는 이번 박람회에 30개국, 300만명 유치를 목표로 현재 세계 115개국에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한 상태다.

이 가운데 2012년 여수엑스포에 참가한 나라 중 섬을 보유한 37개국을 집중 유치 국가로 정해 참가 의사를 타진하고 있다.

지난해 해외 자매도시 중 처음으로 필리핀 세부가 섬박람회 참가를 확정했으며 베트남 팜닌성 하롱시와 참가협약 체결을 추진 중이다. 중국 웨이하이시도 참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지난 3월에는 뉴질랜드, 그리스, 베트남 등 32개국 주한 외국공관장과 관계자 60여명을 초청해

패투어를 진행하기도 했다.

다만 섬박람회 개최를 앞두고 항공, 철도 등 접근성 개선과 예산 부족 문제는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다.

국제행사의 성공 개최를 위해서는 관광객 교통 편의가 우선돼야 함에 따라 조직위는 섬박람회 기간 국제선을 부정기 운항할 수 있도록 지난 3월 국토교통부장관을 만나 건의했으며 국내선 항공과 KTX 등 여수행 열차도 증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섬박람회 총사업비는 676억원으로 2조1000억원에 육박했던 2012년 엑스포 예산에 비교하면 국제행사를 개최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박수관 여수세계섬박람회 조직위원장은 “세계 최초로 섬을 주제로 열리는 행사의 성공개최를 위해서는 전 국가적인 관심과 성원이 필요한 때”라며 “앞으로 남은 500일, 정부 기관, 전국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개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수=이경기 기자

디오션 워터파크, 내달 3일 개장 가정의 달 이벤트 풍성

호남 최대 물놀이 시설인 전라남도 여수 디오션 워터파크가 안전점검을 마치고 오는 5월3일부터 매주 주말과 공휴일에 실내 워터파크를 비롯한 실외 유아풀과 인피니티 풀을 개장한다.

23일 디오션리조트에 따르면 날씨에 구애받지 않고 즐길 수 있는 실내 워터파크는 물론, 완연한 봄 날씨를 만끽하기 좋은 실외 유아풀과 인피니티 풀이 온수로 운영돼 온 가족이 함께 물놀이를 즐길 수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 단위 고객들이 함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도 마련했다. 워터파크에서는 남녀노소 모두가 K-POP 음악에 맞춰 아쿠아로빅을 체험할 수 있는 ‘아쿠아댄스 클래스’가 진행될 예정이며, 어린이 방문객을 위한 ‘만들기 체험존’도 별도 운영된다. 또 5월4일과 5일에는 어린이날을 맞아 디오션 호텔 레스토랑에서 어린이 날 뷔페도 운영된다. 가족 단위 고객을 위해 마련된 ‘키즈&시푸드 뷔페’에서는 60여종의 다채로운 메뉴와 함께 와인을 무제한으로 즐길 수 있다. 어린이날을 기념해 7세 이하 유아는 뷔페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모든 유아에게는 캐릭터 선물세트가 증정된다. 어린이날 뷔페는 워터파크 이용객이나 투숙객은 물론, 여수 지역민에게도 10% 우대 할인 혜택이 적용된다.

여수=이경기 기자

보성군, 추경예산 7715억 확정 제1회 추경 예산대비 931억 증가

전라남도 보성군이 최근 제311회 보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7715억원을 최종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추경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931억원(13.7%) 증액된 규모로, 일반회계는 6589억원(758억원 증가), 특별회계는 1126억원(173억원 증가)으로 편성됐다.

군은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삼중고와 세입 여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군민들의 일상에 직접 도움이 되는 민생 안정 및 지역 현안 사업을 중심으로 전략적 재정 운용에 초점을 맞췄다.

분야별 주요 예산 배분은 △농림해양수산 293억원 △환경 248억원 △일반 공공행정 93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64억원 △문화관광 55억원 △사회복지·보건 34억원 △공공질서·안전 및 교육 14억원 등으로 전 부문에 걸쳐 균형 있는 재정 지원을 추진한다. 특히 군은 이번 추경에서 인구 감소 대응과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 기반 구축에 중점을 뒀다. 지방소멸대응 기금 54억원을 투입해 △보성·별곡커뮤니티센터 예술 정원 조성(30억원) △청년활력마을 조성(10억원) △청년자립터 조성(5억원) △그린느린마을 조성(5억원) △문화 꿈나래 공유거점 조성(2억원) 등 청년 유입 촉진과 정주 여건 개선 사업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이번 추경은 단순한 예산 증액이 아닌 위기 속에서도 보성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고 군민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한 전략적 투자”라며 “군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보성=양종수 기자

장흥 회령포 이순신 축제 선거 관련 9월로 연기

전라남도 장흥 회령포 이순신 축제 추진위원회는 당초 오는 5월16일부터 18일까지 개최할 예정이었던 ‘2025 장흥 회령포 이순신 축제’를 오는 9월12일부터 14일까지로 연기한다고 23일 밝혔다.

매년 5월 회진면 회진항 물양장에서 개최됐던 장흥 회령포 이순신 축제는 올해 제21대 대통령 선거 일정에 따라 연기가 결정됐다.

장흥군과 축제 추진위원회는 선거와 축제가 중복될 경우 선거법 준수, 지역 행정력 분산 및 안전관리 등 여러 측면에서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부득이하게 일정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장흥=김전환 기자

제23회 구례 전국가야금 경연 개최 5월3~4일, 가야금병창보존회 주관



전라남도 구례군은 (사)가야금병창보존회 주관으로 오는 5월3일과 4일 제23회 구례 전국가야금 경연대회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 초·중·고등부, 신인부, 대학부, 일반부로 나뉘어 참가자들이 실력을 겨루며, 가야금 산조, 병창, 창작 등 총 14개 부문에서 수준 높은 경연이 펼쳐질 예정이다. 참가 신청은 지난 20일까지 진행됐으며, 전국에서 311팀, 319명이 신청을 완료했다.

일반부 대상에게는 대통령령상이 수여되며, 금상 수상자는 국가유산청장상, 대학부 대상 수상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받게 된다.

대회 개최 전날인 5월2일 오후 5시 섬진아트홀에서는 대회의 23주년을 기념하는 특별 축하공연이 열린다. 공연은 국악인 이예랑이 사회를 맡아 진행하며, 가야금 산조·병창·창작 공연, 단막창극 ‘뽕파전’, 호남여성농악보존회 등 지역 예술인들이 참여해 풍성한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구례=김상현 기자



지난 18일 고흥군 농업기술센터 특화작목 연구단지 과수시험포장에서 관내 유자 재배 농업인들이 유자 접목기술 교육을 받고 있다.

고흥군 제공

고흥군, 유자 묘목 접목기술 교육 실시

전라남도 고흥군은 최근 농업기술센터 특화작목 연구단지 과수시험포장에서 관내 유자 재배 농업인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자 접목기술 교육을 2차례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유자는 고흥군의 지역 특화작목으로,

전남 수출농산물 1위에 해당하며 재배면적과 과실 생산량은 전국에서 가장 많다.

유자 가공제품에 대한 해외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신규 유자 과원을 조성하려는 농업인과 오래된 과원 내

늙은 묘목을 갱신하려는 농가들이 많아 접목묘 생산기술에 대한 현장실습 수요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군은 우량 묘목의 안정적인 공급과 가격 안정 및 비용 절감을 위해 농업인이 직접 묘목을 생산할 수 있도록 접수 채취와 보관 방법, 접목 및 접목 후 관리 요령에 대해 이론교육과 현장실습을 진행했다.

고흥=심정우 기자

광양시, 모바일 앱 ‘MY광양’ 시범운영

내달 22일 ‘정식 운영’ 예정 시민 의견 반영해 앱 개선

전라남도 광양시가 전국 최초의 원스톱(One-stop) 통합행정 플랫폼인 광양시 모바일 앱(App) ‘MY광양’을 개발해 시범운영 서비스를 시작했다.

23일 광양시에 따르면 모바일 앱 ‘MY광양’은 생애복지플랫폼 2.0 완성을 위한 핵심사업으로, 시의 모든 행정서비스와 생활편의 기능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통합적, 선제적, 맞춤형으로 제공해 시민의 편의를 제고하고자 개발됐다.

총 기능은 22개이며, 주요 기능으로는 △고시·공고, 보도자료 등 시정 소식 △

500개 이상의 복지정책 검색 △각종 행정서비스 신청 △모바일 도서관 회원증 발급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신청 △시민 아이디어 접수 △통합예약 기능(24시간 어린이집, 장난감도서관, 체육시설 등) △각종 생활정보 안내(병원, 약국, 전기차충전소 등) △재난정보 알람 △정책투표 및 설문조사 △긴급복지 SOS 신청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 △읍면동 소식 등이 있다.

이 외에도 △광양시 6개 홈페이지 통합 로그인(SSO) 기능 △나에게 필요한 메뉴를 설정하는 나의메뉴 기능 △업무로 담당부서 검색 및 전화 연결 기능 △시정 전반에 대한 민원상담 채팅 서비스 △정

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공유 기능 등 다양한 시민 편의 기능을 갖췄다.

시범운영은 정식 서비스에 앞서 기능 안정성 점검과 사용자 의견 수렴을 위한 것으로, 앱 사용 중 발생하는 오류나 불편을 개선하고 필요한 기능을 반영해 앱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진행된다.

시범 기간에 모바일 앱을 통해 접수된 모든 행정서비스 신청(복지서비스 신청 등)은 정식 민원으로 접수돼 정상 처리된다. 해당 기간에 모바일 앱의 오류, 불편 및 개선사항을 앱을 통해 제출한 사용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광양시는 앱 정식 운영 이후에도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보다 완성도 높은 스마트 행정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광양=안영준 기자